

나옹혜근의 조선불교계 위상과 법맥*¹

이철현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파라미타칼리지 교수

Naong Hyegeun's status and lineage in Joseon Buddhism

Lee, Cheolheon

Dongguk University Gyeongj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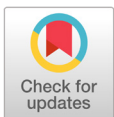
cheadlee@hanmail.net

Abstract

Among the three monks of the late Koryo, Baekwoon Gyeonghan, Taego Bowoo, Naong Hyegeun, it was Naong who stood with the populace and was worshipped widely until Joseon. Naong is a zen priest who went to Yuan dynasty and received certification of Jigong-zen and Imje-zen after he achieved enlightenment domestically through practicing Jogye-zen. However, Naong did not insist Imje-zen. He succeeded the idea of Bojo Jinul who established domestic Jogye-zen and performed both education and belief in the Pure Land to enlighten mankind. When Naong rebuilt Temple Hoiam and held a Buddhist lecture meeting, a lot of audiences flocked. The government sent Naong to Temple Youngwon in Miryang as the noblemen wanted to stop the restoration of Buddhism by removing Naong who was highly esteemed by monks and the public. But on the way to Temple Yeongwon, Naong died in Temple Silleuk in Yeosu. Naong left plenty of miracles and relics as he died, which further attracted people's respect and passed down as the center of belief to monks and people in exclusion of Buddhism of Joseon.

After the middle of Joseon dynasty, Buddhist community arranged lineage as each family scrambled to make a genealogy. Hyujeong's descendants tried to organize the genealogy of Korean Buddhism focused on Imje-zen of China, cutting the flow of the idea and belief inherited since Buddhism was transmitted to the Korean peninsula. They endeavored to make the lineage of Imje-zen by switching the teacher of Hwanam Honsoo from Naong to Bowoo in the late Koryo and early Joseon. However, it was hard to connect to 'Naong-Hwanam' as Naong was widely recognized as the Three monks in Joseon Buddhism, 'Jigong-Naong-Moohak'. And the fact that Taego and Hwanam was not worshipped as the founders of the religious sect in various rituals favored making a new line of Imje-zen masters in the late Koryo separate from the line of Jogye-zen masters passed down from Nine-mountains. While Zen priests made the genealogy of Taego insisting Imje-zen, the lineage of Jigong-Naong-Moohak which received absolute respect from the public still lasted. Naong's presence settled deep inside the masses was not taken away and people's services toward Naong remained in a variety of Buddhism rituals. Naong is worshipped as the certifying monk of Buddhist priests in many ceremonies along with Jigong and Moohak.

Keyword: Naong Hyegeun, Three monks of the late Koryo Dynasty, Jigong, Baekwoon Gyeonghan, Taego Bowoo, Imje-zen, Hwanam Honsoo, Hyujeong



OPEN ACCESS

KJRE. 2020 December, 64(1): 127-144

DOI: <https://doi.org/10.12972/kjre.20200022>

Received: November 11, 2020

Revised: December 13, 2020

Accepted: December 16, 2020

Copyright: © 2020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 이 논문은 2019년 10월 19일 “조계종 중흥조와 오대산 북대 불교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 시작하는 말

고려말 중국에 들어가 임제종의 법을 받아온 백운경한(白雲景閑, 1299~1374)·태고보우(太古普愚, 1301~1382)·나옹혜근(懶翁惠勤, 1320~1376)을 여말삼화상으로 부른다. 경한과 보우는 임제종 석옥청공(石屋淸珙, 1272~1352)의 법을 잇고 혜근은 서천 108조 지공(指空)과 임제종 평산처림(平山處林, 1279~1361)의 법을 이었다.

이들 가운데 고려말 민중과 함께 한 고승은 단연 나옹이다. 나옹은 임제선만을 주장하지 않고 국내 조계선을 확립한 보조지눌(普照知訥, 1158~1210)의 사상을 계승하여 교학과 정토신앙을 함께 수행하고 대중을 교화했다. 나옹은 승려에게는 백납가(百衲歌)·고루가(枯叢歌)·영주가(靈珠歌)를 지어 마음수행에 전념하길 바랐지만 민중들에게는 한글가사인 승원가(僧元歌)·서왕가(西往歌)를 지어 극락왕생하기를 권하고 있다. 나옹이 회암사를 중창하고 법회를 열자 사부대중이 구름처럼 몰려들었고, 조정에서는 나옹을 밀양 영원사로 보냈다. 배불의 기운이 싹트던 시기에 사대부들은 승려와 백성들로부터 절대적인 존경을 받던 나옹을 제거하여 불교중흥의 불씨를 꺼버리려 했다. 나옹은 영원사로 내려가던 중 여주 신륵사에서 입적했다. 입적하면서 남긴 많은 이적과 사리는 더욱더 민중들의 예경을 불러왔고, 조선시대에도 승려와 민중들에게 신앙의 중심으로 이어져 왔다.

사찰에서는 아침예불에 나옹화상행선축원문을 독송하고, 장엄염불에도 나옹의 계송이 들어가 있다. 오늘날 일반인들에게는 ‘청산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 없이 살라하네~’라는 시로 널리 알려져 있다.²

조선중기이후 각 씨족이 앞 다투어 족보를 만들자 불교계도 법맥을 정리했다. 휴정의 후대법손들은 한반도에 불교가 전래되어 면면히 이어온 사상과 신앙의 흐름을 끊어버리고 중국 임제선을 중심으로 한국불교의 법맥을 정리하고자 했다. 그리하여 여말선초 환암혼수(幻菴混脣, 1320~1392)의 사법스승을 나옹에서 보우로 바꾸면서까지 임제선의 법맥을 만들고자 했다. 그러나 민중들 속에 깊이 자리 잡은 나옹의 존재는 뿌리 채 뽑지 못했으며, 나옹에 대한 민중들의 예경은 각종 불교의례집에 남아있으며 각종 불사에 지공·무학과 함께 증명법사로 모시고 있다.

성리학의 통치이념으로 승유억불 정책을 펴던 조선시대에 불교계를 유지하는 밑거름이 되었던 나옹의 위상과 법맥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나옹혜근의 조선불교계 위상

1. 생불, 석가모니 후신

고려말 나옹은 민중들로부터 생불로 존경받았다. 세종 21년(1439) 4월 18일 성균생원 이영산(李永山)등 648명이 상소한 내용에 ‘전조(前朝)의 말기에 중 나옹이 있어서 허무적멸의 가르침으로써 어리석은 무리들을 유혹했습니다. 당시에 이를 추대하여 생불이라고 지목하여, 천승(千乘)의 존귀한 몸을 굽혀서 천한 필부에게 절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³고 했다. 그리고 정극인(鄭克仁, 1401~1481)이 올린 「태학청주요승행호소(太學請誅妖僧行乎疏)」에도 나옹이 생불로 불리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⁴ 조선말기 신위(申緯, 1769~1845)가 쓴 시에서도 나옹을 생불로 노래하고 있다.⁵

나옹이 살아생전에 부처님과 같이 존경받았던 것은 지공(指空, 1300~1361)의 사법제자라는 점과 민중 속으로 내려와 적극적으로 교화했기 때문이다. 서천 108조인 지공은 고려말에 들어와 2년 7개월 머물며 남녀승속을 가리지 않는 대승계인 무생계(無生戒)를 설했는데 고려인들은 지공을 석가모니의 후신으로 존경했다.⁶ 불교를 탄압했던 조선조 태종(1367~1422, 재위 1400~1416)도 ‘불도가 영험이 있다하더라도 세상에 지공 같은 승려가 없는데 어찌 영험이 있겠느냐?’⁷ ‘지공과 같은 승려면 어찌 존경하여 섬기지 않을 수 있겠는가?’⁸ ‘우리나라에 지공·나옹 이후 내가 보고 아는 바로 도에 정통한 승려는 하나도 없었다.’⁹하며 지공을 고승으로 높이 존경하고 있다.

지공이 원나라에 돌아가자 나옹은 원나라에 들어가 지공의 문하에서 10년간 수학하고 인가를 받아 귀국했다. 이로써 나옹은 지공의 사법제자라는 후광을 받으며 민중의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옹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승려들을 지도하고 민중들을 위해 설법했다. 전국에 나옹이 창건하거나 머무른 사찰이 무려 80여 곳에 이른다.¹⁰

살아생전 생불처럼 받들어진 나옹은 입적후 더욱더 부처님으로 모셔지게 되는데 이는 입적할 때 일어난 신비한 일들과 다비 후 남긴 수많은 사리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나옹이 입적할 때 고을 사람들은 오색구름이 산꼭대기를 덮는 것을 보았고, 나옹이 타던 흰 말은 3일 전부터 풀을 먹지 않은 채 머리를 숙이고 슬피 울었으며, 사리를 씻을 때 구름도 없이 비가 내리고 3일간 산위에 환히 빛나는 신비한 광채가 있었다. 신록사 달여(達如)스님은 꿈에 신룡(神龍)이 다비하는 자리에 서려 있다가 강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는데, 그 모습은 말과 같았다. 사리를 모시고 회암사로 돌아갈 때 오래 가물어 배가 강바닥에 닿을까 했는데 신룡의 도움으로 비도 오지 않았는데 강물이 불어나 갈 수 있었다.¹¹

나옹을 다비한 후 수많은 사리가 나오자 나옹에 대한 추모와 예경의 불길은 더욱 타 올랐다. 나옹의 사리에 대해 「탑명」에는 ‘사리 155개를 얻어 거기에 기도하니 558과로 나뉘었다. 사부대중이 재에서 얻어 감춘 것은 수를 헤아릴 수 없었다.’¹²고 했으며, 「행장」에는 ‘화장을 마쳤으나 머리뼈 다섯 조각과 치아 40개는 모두 타지 않았다.’¹³고 했다.

불교에서 사리는 수행을 쌓아야 나오는 것으로 여기고 사리 숫자로 승려의 도력을 가름하는 경향이 있는데 나옹을 다비하자 155개의 사리가 나오고 다시 558과로 분과하는 신비함을 보이니 나옹의 붓다화는 들불처럼 퍼졌다.

치아가 40개라는 이야기는 붓다의 32길상 가운데 40치상(四十齒相)을 연상하게 한다. 이는 40개 치아 주장을 통해 나옹을 붓다와 결부시켜 신성화하는 가장 손쉬운 구조가 확보된다는 것을 의미한다.¹⁴

이색은 ‘지금 나옹은 떠났으나 사리는 온 나라에 퍼졌으며, 그림을 그려 모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¹⁵ ‘묘향산 보현사에 사리가 있으며 명산에 헤아릴 수 없이 있다. 사부대중이 받들어 모시고 공양하는 자가 많았다.’¹⁶ ‘보제의 제자가 헤아릴 수 없었다. 이들이 보제를 위해 입멸한 뒤 추모하여 부도를 새기고 진당을 기록해 변하지 않도록 하는 이가 발뒤꿈치가 닿을 정도다.’¹⁷고 했다. 사리탑은 양주 회암사, 여주 신록사, 문경 윤필암, 원주 영천사, 금강산 정양사, 금강산 표훈사, 묘향산 안심사, 미지산 용문산 등에 세워졌다. 나옹의 제자들이 스승의 진영을 모시고 사리탑을 세우고자 이색을 찾아 기문을 받으려 재물을 준비했으나 이색은 받지 않고 허물어진 절을 수리하라고 하자 이름을 윤필암이라 했는데¹⁸ 모두 일곱 군데가 있었다.

이색은 ‘보제가 세상에 있을 때는 비방하는 자가 많았는데 죽음에 이르러 끌리어 따라감이 이와 같다’¹⁹, ‘보제가 여흥 신록사에서 입적했는데 신령함이 분명하여 의심하던 자는 풀리고 믿는 자는 더욱 믿어서 그를 천년 후까지 공경하기를 꾀했다’²⁰, ‘스님이 입적함에 사리가 나오는 이적이 있어 스님의 도가 세상에 더욱 믿어지게 되었다’²¹고 말했다.

민중들이 나옹을 부처님처럼 모시자 불교계도 나옹을 붓다화하고 나아가 석가모니불의 후신으로 만들었다. 이색은 「신록사선각진당시(神勤寺禪覺眞堂詩)」에서 ‘우리 스승이 오탁악세에 근기에 따라 모습을 보인 것은 붓다가 나신 것에 비유할 수 있다. 그러므로 회암사는 기원정사와 같고 신록사는 쌍림과 같다.’²²고 했다. 나옹이 중창하고 머물렀던 회암사를 석가모니불이 설법하신 기원정사에 비유하고 나옹이 입멸한 신록사를 석가모니불이 입멸하신 쌍림에 비유하고 있다.

조선조에 들면서 나옹의 붓다화 열기는 식지 않고 더욱 타 올랐다. 그리하여 조선승려들은 나옹의 사리를 부처님 사리와 함께 모시며 매우 소중히 여겼다.

세종 때에 승려 적휴(適休)등이 압록강을 건너 명나라에 들어가 불법을 널리 퍼도록 도와달라며 정광여래 사리 2개와 나옹의 사리 1개를 요동(遼東) 도사(都司)에게 바치기도 했다.²³ 정광여래의 사리와 함께 승려 나옹의 사리를 바친 사실에서 조선승려들이 나옹의 사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겼는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미국 보스턴박물관에 있는 석가여래명은제사리소탑에는 ‘釋迦如來舍利 五枚 釋迦如來 迦葉如來舍利 二枚 迦葉如來 定光如來舍利 五枚 定光如來 指空祖師舍利 五枚 指空祖師 懶翁祖師舍利 五枚 懶翁祖師’²⁴라는 글이 새겨져 있다. 지공과 나옹의 사리를 석가여래·가섭여래·정광여래의 사리와 함께 똑같은 사리기에 나란히 봉안하여 지공과 나옹을 여래와 같은 반열로 추앙했음을 의미한다.

나옹의 문도들은 신륵사나옹사리탑을 세울 때 통도사와 금산사의 금강계단의 형식을 모방했고 영천사의 경우 기존 불탑형식에 나옹의 사리를 넣었다. 이는 나옹을 부처로 추앙하고자 하는 의도라 할 수 있다.²⁵

나옹의 사리와 함께 진영을 그려 예경했으며 나옹의 진영은 오늘날 아이들의 사진처럼 널리 유행했다. 태종8년(1408) 일본에 사신을 보내면서 대장경과 함께 나옹의 화상(畵像)을 보내고²⁶, 이듬해 일본에서 온 대내전(大內殿) 다다량덕웅(多多良德雄)의 요청에 따라 다시 대장경과 나옹의 화상을 하사했다.²⁷ 태종이 나옹의 진영을 일본에 보내고 일본에서 나옹의 진영을 요청한 것은 일본에서도 나옹의 명성이 높았다는 사실을 일러준다.

나옹의 진영은 순천 송광사²⁸, 청주 송천사²⁹, 금강산 표훈사³⁰, 금강산 정양사³¹, 문경 대승사³², 여주 신륵사³³, 상주 남장사³⁴, 양산 통도사³⁵, 이천 보살사³⁶, 안변 석왕사³⁷, 묘향산 안심사³⁸, 오대산 월정사 영감암³⁹, 거제 견암선사⁴⁰, 개성 광명사⁴¹, 선산 도리사, 승주 선암사, 양주 불암사, 양주 회암사⁴² 등에 모셔져 있었다.

그리고 나옹을 묘사할 때 승려상이 아니라 아예 불상으로 묘사했다. 전남 장성을 불대산 마애여래좌상은 나옹상이라 전해오는데 광배를 갖춘 불상형식이다.⁴³ 그리고 민중들의 무속신앙에서 예경하는 신들을 모신 인왕산 국사당(國師堂)⁴⁴에 나옹의 그림이 있는데 부처의 형상으로 그려져 있다. 나옹이 마치 부처와 같이 표현되어 있기에 석가모니불로 착각하기도 했다.⁴⁵

아울러 조선에 이르면 위경(僞經)을 편찬하면서까지 나옹을 석가모니불의 후신으로 추앙하기에 이른다. 가정(嘉靖)8년(1529)에 발간한 『통록촬요(通錄撮要)』에는 ‘『치성광명경(熾盛光明經)』에 이르기를 세존이 가섭존자에게 말하길 내가 멸도한 뒤 500년후 내 법은 신라로 가리라. 다섯 외도가 세상에 나와 내 법을 파괴하리라. 경신년(1320)⁴⁶에 한 비구가 큰 사문이 되어 큰 불사를 하고 모든 외도를 부수리라. 호(號)는 보제나옹(普濟懶翁)이고 그 모임은 공부선(工夫選)이라. 가섭아, 이가 내 몸인 것을 알아야 한다.’⁴⁷는 내용이 있다. 『치성광명경』이라는 위경까지 만들어 나옹을 석가모니불의 후신으로 만들고자 한 것이다.

이외 제산운고(霽山雲皐)가 쓴 「진묵조사유적고(震默祖師遺蹟攷)」의 발문에도 “내가 일찍이 「석가현기(釋迦懸記)」를 읽었는데 ‘내가 멸도한 후 나옹이라는 한 비구가 출현하니 내 몸이다. 또 진묵이라는 한 비구가 출현하니 내 몸이다.’고 했다. 이 두 분은 우리 본사께서 천역으로 몸을 나투어 염부제의 고해에서 수많은 어린애를 건지시니 추앙하여 따른다.”⁴⁸고 했다. 여기서도 「석가현기(釋迦懸記)」란 기록을 내세우며 나옹과 진묵(震默, 1562~1633)이 석가모니의 후신이라 주장하고 있다. 민중은 나옹을 붓다처럼 여겼고 배불의 척박한 환경에 승려들은 나옹을 더욱 붓다화하여 구심점으로 삼고자 했다.

조선 승려들에게 나옹은 종파를 뛰어넘어 존경받는 고승으로 인식되었다. 그리하여 자신이 꿈속에서 나옹을 친견했다는 이야기를 했다. 득통기화(得通己和, 1376~1433)는 자신이 오대산 영감암에서 나옹의 진영에 제수를 올린 뒤 이를 잘 때 신승이 나타나 “그대 이름을 기화라 하고 호를 득통이라 하라.”⁴⁹고 했다. 그리하여 법명을 수이(守伊)에서 기화로 바꾸고, 호를 무준(無準)에서 득통으로 바꿨다. 천태고승인 행호(行乎)는 스스로 나옹의 짝이라 하여 세상을 유혹하고 백성을 속여 풍속을 바꾸려 하는데 백성들은 우러러 사모하기를 나옹과 다름없이 했다.⁵⁰

조선후기 환성지안(喚醒志安, 1664~1729)도 백일기도하던 중 꿈속에서 나옹으로부터 ‘수미산을 짚어지고 큰 바다를 건너고 보시의 문을 크게 열되 드러나지 않게 하라’는 시를 얻었다.⁵¹ 화담법린(華曇法璘, 1843~1902)도 백암산 관음전에서 수행할 때 어느 날 밤 꿈에서 6조대사와 나옹화상을 만나 문답을 나누었다.⁵²

조선시대 승려들은 종파를 불문하고 민중들이 우러러 예경하던 나옹의 권위와 위상을 빌려 불법홍포를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불사의 증명법사 - 삼화상

불교의례란 불교의 근본 사상을 몸으로 표현하는 종교적 행위다. 그러므로 불교의례에는 불교의 철학과 역사와 문화가 담겨있다고 할 수 있다. 의례라고 하면 전통이나 문화라는 말과 자연스럽게 연결되기도 한다. 전통은 전해오는 굳어진 형식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지니며, 문화는 의미 있는 재현을 거듭해서 삶이 된다. 해서 의례 문화에는 의미 있는 형식만큼 의미 있는 내용이 갖춰져 있다.⁵³ 그러기에 우리는 불교의례를 통해 불교신앙의 시대적 변화와 실상을 살필 수 있다. 조선조에 간행된 승단(僧團)의 각종 의례집에는 지공·나옹·무학에 대한 예경문이 실려 있다.

현존 의례집을 통해 연도별로 정리해 보면 먼저 중관해안(中觀海眼, 1567~)이 지은 「설선의후발(說禪儀後跋)」에는 ‘큰 어른[청허]께서 생전에 구결하신 조사의 예참을 관찰해 보니 우리 동방에 조사의 등불을 전한 분은 도의·범일·철감·무염·현옥·도현·혜철·이엄·홍척·보조·지공·나옹·무학일 뿐이다’고 했다.⁵⁴ 조선불교의 중흥조인 청허휴정은 동방에 조사의 등불을 전해 온 것은 구산선문조사와 보조지눌 그리고 지공·나옹·무학이라고 했다. 이후 선종에서 행하는 참회 및 의식문을 수록한 여러 「선문조사예참」에는 이 전통을 따르고 있다.

서하(西河)가 1664년에 편찬한 『자사산보문(仔雙山補文)』 「향당제조사예작의문(鄉唐諸祖師詣坐儀文)」⁵⁵, 설매(雪梅)·도성(道性)이 1670년(현종11년) 충청도 계룡산 갑사에서 간행한 『선문조사예참작법(禪門祖師禮懺作法)』⁵⁶, 1713년 묘향산 보현사에서 간행한 『산보범음집(刪補梵音集)』 「중회작법(衆會作法)」⁵⁷, 지환(智還)이 1721년 경종1년 경기도 양주 삼각산 중흥사에서 개간한 『천지명양수륙재의범음산보집(天地冥陽水陸齋儀梵音刪補集)』의 「선문조사예참」⁵⁸, 혜명(慧溟)이 1896년 경남 고성 안정사 가섭암에서 필사한 『예문(禮文)』⁵⁹ 등에서 지공·나옹·무학을 예참하고 있다.

의례집에는 나옹과 무학에 대한 재일을 기록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 1694년 김제 금산사에서 개간한 『제반문(諸般文)』 「조사공양문(祖師供養文)」에 ‘5월 15일 공민왕사모제존자나옹대화상, 9월 11일 태조왕사모엄존자무학대화상⁶⁰이라 표기하고 있다. 정행(井幸)이 1869년에 승가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례문들을 수집해 1882년 해인사 도솔암에서 간행한 「승가일용식시묵언작법(僧家日用食時默言作法)」에는 ‘제성탄일(諸聖誕日) 석가모니불 4월 8일, 아미타불 11월 17일, 문수보살 4월 5일, 지장보살 7월 13일, 나옹조사 5월 15일, 무학조사 9월 11일’이라 기록하고 있다.⁶¹

석가모니불과 아미타불 그리고 문수보살과 지장보살의 탄신일과 함께 나옹과 무학의 탄신일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조선불교에서 나옹과 무학의 위상이 어떠한가를 알 수 있다.

나아가 불사를 할 때도 지공·나옹·무학을 삼화상이라 하여 증명법사로 모시고 있다. 삼화상을 증명법사로 모시는 것에 대해 이능화는 ‘이조 5백년 이래 불교계에서 지공·나옹·무학 3사가 제일 숭봉(崇奉)을 받음은 사실이니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태조의 미시(微時)에 설봉산(雪峰山) 토굴에서 무학대사를 만나 왕자(王字)의 대몽(大夢)을 해석했던 이유에서 기초된 것이라 할 수 있다.’⁶²고 했다.

특히 태조가 왕위를 물려준 뒤 머물렀던 회암사는 두 차례 왕실의 지원으로 중창불사를 하면서 회암사와 관련한 지공·나옹·무학을 불사의 증명법사로 모셨을 것이고 이후 전국사찰에서 불사축원을 할 때마다 지공·나옹·무학 삼화상을 증명법사로 모셨다 할 수 있다.

현존 불교의례집에 증명법사로 모셔지는 경우를 살펴보면 필사자나 필사연대가 기록되어 있지 않는 「화엄예경문(華嚴禮敬文)」에 여러 불보살을 찬탄하고 마지막으로 중국의 화엄 7조와 우리나라 원효조사와 의상조사, 그리고 ‘위작증명 지공·나옹·무학 3대화상’이라 예경하고 있다.⁶³ 그리고 정석(鼎奭)이 필사한 「화엄대예문(華嚴大禮文)」⁶⁴, 용허(聳虛)가 1824년(순조24년) 금강산 유점사에서 간행한 「조상경(造像經)」⁶⁵, 금선(巨璇, 1767~1852)이 불가에서 사용하는 제반의식문을 정리해 1827년 백양산 운문암에서 간행한 『작법귀감(作法龜鑑)』 「불상시창불(佛像時唱佛)」⁶⁶, 작자미상의 필사본 『요집(要集)』 「불사시창불(佛事時唱佛)」에서 각각 지공·나옹·무학 삼화상을 증명법사로 모시고 있다.⁶⁷

안진호(安震湖)가 조선시대 많은 의식집을 1931년 정리·편찬해 오늘날 모든 종단에서 사용하는 『석문의범』 「대예참예」에도 증명법사로 예경하고 있다.⁶⁸ 그리고 「이운편(移運篇)」 가사통문불(袈裟通門佛) 뒷부분에 ‘증명법사가 되어주신 삼화상에게 귀의합니다. 삼보의 대자대비로 증명하여 주시어 불사를 성취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이어서 삼화상청(三和尚請)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증명법사로 모시는 것은 ‘삼화상은 세 가지[문(聞)·사(思)·수(修)] 지혜를 갖추었고 두 가지 이로움[자리(自利)·이타(利他)]이 원만히 이루어졌으며 역대 심인종(心印宗)에 이미 비밀히 전한 뜻을 얻었으므로 시방의 불사를 하는 문중에 증명하는 지위를 맡게 된다.’⁶⁹고 했다.

조선불교의 의식작법은 각종 점안식을 비롯하여 많은 작법이 매우 신빙성을 띠고 있는 내용이 많다. 이에 도력과 신통이 뛰어난 고승이 증명을 할 때 작법하는 불사가 원만히 성취된다는 믿음이 있고 가풍이 있다. 그러므로 의식작법에는 현재에도 증명단을 배설한다. 증명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증명법사는 법력이 높아야 한다. 그런데 오늘에 이르기까지 증명법사는 반드시 지공·나옹·무학 삼대화상으로 하고 있다. 이는 조선불교 이후 삼대화상의 지위를 그대로 반영함이라 하겠다.⁷⁰

서천 108조 지공과 공민왕사 나옹과 조선 태조왕사 무학, 이 모두는 승속을 막론하고 존경받던 고승들이었다. 조선조 불교를 배척해 사찰의 토지와 노비를 몰수하던 환경에서도 태조와 관련 사찰은 오히려 지원을 받았고, 왕들은 무학을 조선개국을 도운 고승으로 여겼다. 그리하여 조선조에 지공·나옹·무학 삼대화상의 지위는 확고했다.

III. 나옹해군의 법맥

조선 중기에 무오·갑자·기묘·을사의 4대 사화를 겪으면서 정권을 장악한 사람으로서는 학맥의 강조를 통해서 내집단 안에서의 결속을 강화할 필연성이 대두한다. 곧 이와 같은 측면들이 17C의 조선불교에 영향을 미치면서 발생하는 것이 바로 법계인식의 환기인 것이다.⁷¹

한국불교의 법맥을 최초 정리한 이는 무학자초이다. 무학은 평산처림 문하를 중심으로 「불조종파지도(佛祖宗派之圖)」를 지었는데 이를 도안(道安, 1638~1715)이 강희(康熙) 27년(1688) 11월에 보충해 보현사에서 중간했다.⁷² 그리고 채영(采永)이 3년간 팔도를 두루 다니면서 자료를 수집해 건륭(乾隆) 29년(1764) 전주 송광사에서 「서역중화해동불조원류(西域中華海東佛祖源流)」를 간행해 유포함으로써 이를 한국불교의 정통법맥으로 추종하기에 이르렀다.

조선중기 휴정의 후대법손들이 임제선 중심으로 한국불교의 법맥을 정리하면서 나옹의 제자인 환암을 태고의 사법 제자로 조작한다. 환암의 스승이 누구인가를 고려말의 자료를 통해 밝혀보자.

먼저 환암의 사법스승이 태고라는 주장은 이색(1328~1396)이 홍무(洪武) 18년(1385) 9월 11일에 세운 「태고사원증국사탑비(太古寺圓證國師塔碑)」의 음기에 ‘문도(門徒) 국사지웅존자혼수(國師知雄尊者 混修)’⁷³가 있고, 유창(維昌)이 홍무 16년(1383) 10월에 지은 「원증국사행장기(圓證國師行狀記)」의 끝부분에 ‘추천하여 그 상수배로 된 자는 환암화상과 고저(古樵)화상이다.’⁷⁴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색은 보우의 비문뿐만 아니라 나옹의 비문도 지었는데 보우의 비문에서는 ‘문도(門徒)’라 표기하고 나옹의 비문에는 ‘문생(門生)’이라 표현을 달리하고 있다. 문도와 문생은 다른 의미다. 이색이 ‘문도’라고 표현한 것은 원증국사가 입적하자(1382) 전국 승려들이 추모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일종(一宗)의 무리라는 의미로 사용했다. 나라의 스승이자 불교계의 가장 존경받는 고승인 국사가 입적하였으므로 국사, 왕사, 내원당의 순서로 당시 고승들을 모두 기록한 것이다.

문도가 사법제자들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는 문도에 기록된 명단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내원당 원규(元珪)는 각진(覺眞)국사 복구(復丘)의 제자이고⁷⁵, 대선사 상충(尙聰)은 환암의 제자다.⁷⁶

그런데 이색이 홍무18년(1385) 7월에 지은 「태고화상어록서」에는 왕사인 찬영과 광명사 굉철봉이 태고문인의 우두머리라 했다. 환암이 태고의 사법제자라면 서문을 지을 당시(1385)는 국사인 혼수를 우두머리라 기록하지 않을 리 없다. 이색은 여기서 문도라 하지 않고 문인이라 표현하고 있다. 고승의 어록은 직계제자들이 스승의 시문을 수집하고 정리해 간행하므로 사법제자인 찬영이 서문을 부탁한 것이다. 그리고 『태고어록』에는 환암에 대한 계송이나 시구가 한 점도 없다는 사실도 환암을 보우의 사법제자라 주장하기엔 설득력이 없다.

이에 비해 혼수의 사법스승이 나옹이라는 근거는 많다. 이색이 지어 기미년(1379) 5월 15일에 세운 「신록사보제선사사리석종비」의 음기에 ‘문생(門生) 보제대선사수환암(普濟大禪師脩幻菴)’⁷⁷이라 했고, 또 이색이 지어 1384년에 세운 「안심사지공나옹사리석종비(安心寺指空懶翁舍利石鐘碑)」에 ‘문생 비구 국사지웅존자환암혼수(比丘 國師智雄尊者幻菴混脩)’⁷⁸라는 기록이 있다.

무엇보다 이색은 젊은 시절부터 환암과 친분이 있어 환암의 스승과 제자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이색은 환암이 청룡사에 있을 때 「환암기(幻菴記)」를 써 주었는데 ‘좀 자라서 18인과 계를 맺어 좋게 지냈다. 천태의 원공(圓公)과 조계의 수공(脩公)도 함께 했는데 서로 얻음이 깊고 서로 기약함이 두터운은 더 말해 무엇하리. 내가 연경(燕京)의 관학에 다니게 되자 수공도 산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30년이 지났다.’⁷⁹고 했다. 이색과 환암은 30년 지기인 셈이다.

이색이 환암을 생각하며 지은 시가 『목은시고(牧隱詩藁)』에 13편이나 실려 있으며⁸⁰, 환암의 제자나 도반들, 그리고 환암의 스승인 나옹과 그 제자들의 요구에 따라 수많은 시와 글들을 써 주었다.⁸¹ 이색은 환암과 오랜 세월을 통해 잘 알고 환암이 나옹의 법을 이은 제자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므로 태고와 나옹의 비에서 문도와 문생으로 구분해 기록했다.

또한 「보각국사비(普覺國師碑)」에는 ‘오대산 신성암(神聖菴)에 있으면서 오대산 고운암(孤雲菴)에 있던 나옹화상을 만나 도를 물었다. 나옹은 금란가사와 상아불자와 산모양의 석장을 환암에게 보내 신표로 삼았다.’⁸²고 기록하고 있다.

공민왕 19년(1370) 9월에 왕이 참석한 가운데 나옹이 주관하여 양종오교의 모든 승려들을 모아 공부선(工夫選)을 열었다. 왕이 참관하고 선교의 모든 종파를 초월한 승려들이 참여한 공부선은 고려말 불교계의 중요한 행사였다. 공부선의 내용은 나옹의 행장과 비문에 기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암의 비문에도 상세히 기록되고 있다. 나옹이 주관한 공부선에 오대산에서 도를 물은 환암만이 합격하고 있다는 사실은 나옹과 환암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태고어록」에는 환암에 대한 시가 한 편도 없는데 비해 「나옹화상가송」에는 환암에 대한 시가 여러 편 수록되어 있다.⁸³ 그리고 환암은 각뢰(覺雷)가 모은 「나옹화상가송」과 각련(覺璉)이 모은 「나옹화상어록」을 교정했다.⁸⁴ 환암이 나옹의 어록을 간행하기 위해 교정을 보았다는 것은 환암이 나옹의 제자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지공·나옹·환암·지천·태고·찬영의 비문에 나타난 제자들을 살펴보면 나옹계(지공·나옹·환암·지천)의 제자가 서로 중복되며, 태고계(태고와 찬영)의 제자가 중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옹계와 태고계의 사제관계를 살펴보면 환암은 나옹계임이 분명하다는 걸 보여준다.⁸⁵

나옹의 법맥을 가장 먼저 밝히고 있는 이는 허균이다. 허균은 휴정이 입적한 뒤 1612년에 「청허당집서」와 「사명석장비」에서 청허의 법계를 밝히고 있다.

허균은 「청허당집서」에서 중국 법안종의 법안문익(法眼文益)으로부터 영명연수(永明延壽)를 거쳐 도봉영소-도장신범-청량도국-용문천은-평산승신-묘향회해-현감각조-두류신수-보제나옹-남봉수능-등계정심-벽송지엄-부용영관-청허휴정으로 이어진다고 했다.⁸⁶ 그리고 「사명석장비」에서는 오조홍인…영명연수…보조지눌…나옹혜근…부용영관-청허휴정으로 이어진다고 했다.

이종익은 「청허당집서」에서 밝힌 영소이하 신범으로부터 신수까지 7인의 선사는 역사상 그 이름의 흔적을 찾을 수 없기에 허균이 허구로 이름을 날조했다고 했다.⁸⁷ 그리고 이능화는 ‘이 두 글에 실린 사법상전의 자취를 보건대 실로 조리가 없다. 어떤 때는 임제와 조동의 가풍을 혼돈해서 일컫고, 때로는 법안과 영명의 전함을 함께 일컬으며, 또 영소를 일컫고 또한 목우를 일컫는다. 그리고 많은 생소한 선사를 인용하여 그 사이에 끼워서 헝클어진 실을 잡고 그 끝을 찾을 수 없는 것과 같다.’⁸⁸고 했다.

그러나 고익진은 설암추봉(雪巖秋鵬)의 「염화설화발문(拈頌說話跋文)」(1686)에 ‘我東有直點燈 傳曹溪宗賜八字大師覺雲 於幻菴南峰之役 得七大仙爛柯訣者也’라는 글이 있어 남봉수능은 환암혼수를 말하며⁸⁹ 벽송지엄이 보조선을 계승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허단보가 휴정과 유정을 목우·강월의 계승자라고 한 것은 적평이라 할 수 있다.⁹⁰고 했다.

허균은 불교에 심취해 휴정에게 불교에 대한 의문을 묻기도 하고,⁹¹ 유정에게 선에 대한 자기 견해를 적어 보내기도⁹² 했다. 허균은 유정과 절친한 사이였던 중형 허봉과 함께 봉은사에서 유정을 만난(1586) 이후 유정이 입적할 때(1610)까지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아울러 허균은 「사명당집서」에서 ‘스님은 두루 회통하고 꿰뚫어서 깨달음을 넘고 지혜가 뛰어나서 조계와 황매(黃梅)의 가법(家法)을 참으로 얻었다.’⁹³고 했다.

허균은 자신이 쓴 위 세 글에서 5조 홍인, 법안종 연수, 조계선 지눌, 나옹, 혼수, 휴정으로 연결하고 있다. 선종의 5가 7종 분류에 따르면, 세속의 장자상속에 따르자면 이 계보는 성립할 수 없다. 허균은 5조 홍인을 말해 6조 혜능만이 아닌 신수를 포함했고, 연수를 말해 임제종만을 주장하지 않았고, 지눌을 말해 중국선만이 아닌 조계선을 말했고, 나옹을 통해 지공선과 임제선과 조계선을 통합했다. 이는 조선불교 승려들이 선과 교와 정토를 함께 수행하고 있는 형태를 그대로 표현한 것이다.

국내 조계선의 전통은 통일신라시대 구산선문에서 비롯한다고 할 수 있다. 실제 17세기 이전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조선 선사에 대한 예경문인 선문조사예참문 등에는 신라말 9산선문의 개창조와 고려의 보조, 지공, 나옹, 무학 등만이 거론되고 있을 뿐 태고는 예경대상으로 거론되지 않고, 오히려 나옹법통설이 보편화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⁹⁴

그러나 언기(彦機)는 「봉래산운수암종봉영당기(蓬萊山雲水庵鍾峰影堂記)」⁹⁵과 「서산행적초」에서⁹⁶ ‘석옥청공-태고보우-환암혼수-구곡각운-벽계정심-부용영관-청허휴정’으로 이어지는 임제종 중심의 법맥을 주장했다. 지금까지의 법맥을 무시하고 태고화상을 해동초조로 하여 임제선을 중심으로 법맥을 정리하게 된 까닭을 해안은 인조 18년(1640)에 지은 「사명대사행적」에서 ‘비문에 있는 글에서 영명은 법안종이고 목우자는 별종이고 나옹은 평산의 분파라면서 임제로부터 전해 받은 법통의 차례를 빠뜨리고 있어 동학들과 의논해 바로잡는다.’⁹⁷고 밝히고 있다.

왜 청허의 후대 법손들은 나옹을 중심으로 전래되어오던 국내전통의 법맥설을 파기하고 태고를 중심으로 하는 임제선맥을 선택하게 된 것일까? 이에 대해 김영태는 첫째 임제정맥의 확립을 위해, 둘째 대대상승의 선가전통을 살리기 위

해, 셋째 공론으로서의 법계를 정립하기 위해서였다고 밝히고 있다.⁹⁸

국내 전통의 조계선을 수학과 서천 108조 지공과 임제종 평산으로부터 인가를 받고 정토신앙을 민중에게 전파했던 나옹보다는, 임제종 석옥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구산선문을 통합하려는 태고쪽이 순수한 임제선의 법맥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조선불교계에 나옹의 존재는 이미 ‘지공-나옹-무학’이라는 삼화상의 체계가 깊이 자리하고 있어 ‘나옹-환암’으로 연결하기가 어려웠다. 그리하여 ‘나옹-환암’을 ‘태고-환암’으로 변조해 임제선맥을 정리했다. 각종 의례집에서 태고와 환암을 선문조사로 예경하지 않았다는 것이 오히려 임제선의 법맥을 새로 만드는 데 유리했다. 의례집의 구산선문으로부터 이어져 오는 조계선의 법맥과는 별도로 고려말 중국 임제선의 법맥을 새로 만들어도 별다른 반론이 없기 때문이다.

일부 선사들이 조작하면서 무리하게 정리한 임제선 법맥은 일부 선사들만의 주장일 뿐 그 외 승려들과 민중의 지지를 얻을 수 없었다. 전래해 오던 의례집에 구산선문조사와 지눌, 지공·나옹·무학을 예경해 온 내용을 바꿀 수는 없었고, 불사의 증명법사로 지공·나옹·무학 삼화상을 모심으로써 민중의 요구를 충족했다. 그리하여 현실에서 민중이 믿어왔던 삼화상 법맥과 선사들이 주장하는 임제선 법맥이 함께 존재했다.

IV. 맺는 말

고려말 삼사라 부르는 백운경한, 태고보우, 나옹혜근 가운데 민중과 함께 하고 조선조까지 널리 예경된 이는 나옹이다. 나옹은 국내에서 조계선을 수행하여 깨달음을 얻은 뒤 원나라에 들어가 지공선과 임제선을 인가받아 온 선사다. 그러나 선과 함께 교학과 정토신앙을 함께 수행하고 왕사면서도 민중 속으로 들어가 교화했다.

나옹이 지공의 수기를 따라 회암사를 중창하자 사부대중이 구름처럼 몰려들었고, 배불의 기운이 싹트던 시기에 사대부들은 불교중흥을 원치 않았다. 밀양 영원사로 내려가던 중 신륵사에서 이적들을 보이며 입적했고 다비후 수많은 사리를 남기자 민중은 나옹을 부처님으로 여겼다.

민중의 뜻을 따라 승려들도 전국에 걸쳐 나옹의 진영을 모시고 사리탑을 세웠고, 의례집에서 선문조사로 예경했고, 위경을 만들면서까지 석가모니불의 후신으로 추앙했다. 조선조가 되면서 불교가 탄압을 받지만 태조 이성계의 개국을 도운 무학에 대한 예경이 특별했다. 태조는 지공과 나옹의 부도와 비가 있는 회암사에 무학의 부도를 미리 만들게 하여 ‘지공-나옹-무학’ 삼화상의 법계를 정립했다. 이후 지공-나옹-무학 삼화상은 의례집에서 선문조사로 예경될 뿐만 아니라 불사의 증명법사로 모셔졌고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조선 중기에 4대 사화를 겪으면서 정권을 장악한 사람들은 학맥의 강조를 통해서 내집단의 결속을 강화할 필연성을 인식하자 17C의 조선불교에서도 법계인식이 일어나게 된다. 허균은 「청허당집서」·「사명당석장비」·「사명당집서」를 쓰면서 ‘오조홍인…영명연수…보조지눌…나옹혜근…환암훈수…부용영관-청허후정-사명유정’의 법계로 정리했다. 허균은 5조 홍인을 말해 6조혜능만이 아닌 신수를 포함했고, 연수를 말해 임제종만을 주장하지 않았고, 지눌을 말해 중국선만이 아닌 조계선을 말했고, 나옹을 통해 지공선과 임제선과 조계선을 통합했다. 이는 조선불교 승려들이 실제 수행하고 있는 형태를 그대로 표현한 것이다.

국내 조계선의 전통은 통일신라시대 구산선문에서 비롯하기에 17세기 이전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조선 선사에 대한 예경문인 선문조사예참문 등에는 신라말 9산선문의 개창조와 고려의 보조, 지공, 나옹, 무학 등만이 거론되고 있

어 나옹법통설이 보편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청허의 후대법손들은 나옹이 아닌 태고를 해동초조로 삼고 환암의 스승을 나옹에서 태고로 변조해 ‘석옥청공-태고보우-환암훈수-구곡각운-벽계정심-부용영관-청허휴정’으로 이어지는 임제선 중심의 법맥을 주장했다.

국내 전통의 조계선을 수확하고 서천 108조 지공과 임제종 평산에게 인가를 받고 정토신앙을 백성들에게 전파했던 나옹보다는, 석옥으로부터 임제선을 이어온 태고쪽이 순수한 임제선의 법맥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조선불교계에 나옹의 존재는 이미 ‘지공-나옹-무학’이라는 삼화상의 체계가 깊이 자리하고 있어 ‘나옹-환암’으로 연결하기가 어려웠다. 그리하여 ‘나옹-환암’을 ‘태고-환암’으로 변조하면서 임제선맥으로 정리했다.

각종 의례집에서 태고와 환암을 선문조사로 예경하지 않았다는 것이 구산선문으로부터 이어져 오는 조계선의 법맥과는 별도로 고려말 중국 임제선의 법맥을 새로 만드는데 유리하게 작용했다. 선사들이 임제선을 주장하며 태고법맥을 만들었지만 현실은 민중들의 절대적 예경을 받는 지공-나옹-무학의 법계는 여전히 남아있다.

선종에서 주장하는 사법전등(嗣法傳燈)은 스승이 직접 법을 제자에게 전하여 법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겠다는 의미를 가지나, 억지로 끌어다 맞춘 태고법맥을 역사적 사실이라 믿는 사람은 없다. 환암의 사법스승이 나옹임에도 불구하고 태고로 조작했다. ‘태고보우-환암훈수-구곡각운-벽계정심-벽송지엄-부용영관-청허휴정’으로 이어지는 오늘날 태고법맥에서 정심은 각운에게 직접 인가를 받지 않았다. 태고법맥은 고려말 중국 임제선 중심으로 법맥으로 정리하여 구산선문으로부터 이어오는 국내 조계선의 법맥을 지워버렸다. 그리고 세속의 장자상속처럼 법이 한 곳으로만 흐른다면 단절의 문제와 정통성 문제가 있다.

선사들이 임제선의 사자상승을 강조하며 임제선 법맥을 만들더라도 민중이 오랫동안 신앙해온 삼화상의 법맥은 의례를 통해 살아있다. 조선시대의 척불에도 불교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민중의 뿌리 깊은 신앙과 의례에 있었다.

요약

고려말 삼사라 부르는 백운경한, 태고보우, 나옹혜근 가운데 민중과 함께 하고 조선조까지 널리 예경된 이는 나옹이다. 나옹은 국내에서 조계선을 수행하여 깨달음을 얻은 뒤 원나라에 들어가 지공선과 임제선을 인가받아 온 선사다. 그러나 나옹은 임제선만을 주장하지 않고 국내 조계선을 확립한 보조지눌(普照知訥, 1158~1210)의 사상을 계승하여 교학과 정토신앙을 함께 수행하고 대중을 교화했다. 나옹이 회암사를 중창하고 법회를 열자 사부대중이 구름처럼 몰려들자 조정에서는 나옹을 밀양 영원사로 보냈다. 배불의 기운이 싹트던 시기에 사대부들은 승려와 백성들로부터 절대적인 존경을 받던 나옹을 제거하여 불교중흥의 불씨를 꺼버리려 했던 것이다. 나옹은 영원사로 내려가던 중 여주 신륵사에서 입적했다. 입적하면서 남긴 많은 이적과 사리는 더욱더 민중들의 예경을 불러왔고, 조선시대에도 승려와 민중들에게 신앙의 중심으로 이어져 왔다.

조선중기이후 각 씨족이 앞 다투어 족보를 만들자 불교계도 법맥을 정리했다. 휴정의 후대법손들은 한반도에 불교가 전래되어 면면히 이어온 사상과 신앙의 흐름을 끊어버리고 중국 임제선을 중심으로 한국불교의 법맥을 정리하고자 했다. 그리하여 여말선초 환암훈수(幻菴混脩, 1320~1392)의 사법스승을 나옹에서 보우로 바꾸면서까지 임제선의 법맥을 만들고자 했다. 조선불교계에 나옹의 존재는 이미 ‘지공-나옹-무학’이라는 삼화상의 체계가 깊이 자리하고 있어 ‘나옹-환암’으로 연결하기가 어려웠다. 그리고 각종 의례집에서 태고와 환암을 선문조사로 예경하지 않았다는 것이 구산선문으로부터 이어져 오는 조계선의 법맥과는 별도로 고려말 중국 임제선의 법맥을 새로 만드는데 유리하게 작용했다. 선사들이 임제선을 주장하며 태고법맥을 만들었지만 나옹에 대한 민중들의 예경은 각종 불교의례집에 남아있으며 각종 불사에 지공·무학과 함께 증명법사로 모시고 있다.

주제어

나옹혜근, 여말삼사, 지공, 백운경한, 태고보우, 임제선, 환암훈수, 휴정

참고문헌

- 『세종실록』
- 『태종실록』
- 『정조실록』
- 『순종실록』
- 『朝鮮金石總覽』 (아세아문화사, 1976)
- 許興植 編著, 『韓國金石全文』 (아세아문화사, 1984)
- 『東文選』
- 『新增東國輿地勝覽』
- 『韓國文集叢刊』
- 「오주연문장전산고」
- 『韓國佛教全書』
- 『韓國佛教儀禮資料叢書』
- 「佛祖傳心西天宗派旨要序」
- 김형우, 『고승진영』 (대원사, 1996)
- 안진호, 『석문의범』 (법륜사, 1993)
- 龍雲堂, 「松廣寺事蹟」 『曹溪山松廣寺史庫』 上(建物部)
- 이능화, 『佛教』 창간호
- 李能和 著, 『朝鮮佛教通史』 (보련각)
- 李鍾益, 『韓國佛教の研究』 (東京: 國書刊行會, 昭和55年)
- 한국종교연구회 지음, 『한국종교문화사』 (서울;청년사, 1998)
- 현담 저, 『나옹왕사불적답사길』 (영덕불교문화발전연구원, 2017)
- 高翊晉, 「碧松智嚴의 新資料와 法統問題」 『佛教學報』 22(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1985)
- 金煥泰, 「朝鮮禪家の 法統考」 『불교학보』 22(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1985)

- 김태곤, 「국사당 신앙 연구 - 중서부지방 형태를 중심으로」, 『백산학보』 8(백산학회, 1970)
- 남동신, 「여말선초기 나옹 현창운동」 『한국사연구』 139(한국사연구회, 2007)
- 염중섭, 「나옹의 붓다화에 대한 고찰」 『사학연구』 115(한국사학회, 2014)
- 염중섭, 「환암훈수의 사법정황과 법계에 대한 인식변화 I」 『국학연구』 33(한국국학진흥원, 2017)
- 이성운, 「의례로 읽는 삼보와 재승관」 『문사철』 38(한국불교사연구소, 2014)
- 이철현, 「나옹혜근의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 宗梵, 「懶翁禪風과 朝鮮佛教」 『가산이지관스님화갑기념논총 한국불교문화사상사』 상(가산불교문화연구원, 1992)

Endnote

- 1 이 논문은 2019년 10월 19일 “조계종 중흥조와 오대산 북대 불교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 2 나옹의 시라 알려져 있는 이 시는 『나옹어록』과 『나옹가송』에는 없다. 출처가 명확하지 않으나 이 시는 훈민정음 창제이전부터 한글가사를 지어 민중들에게 불교를 전달하려했던 나옹의 교화노력을 보여준다 할 수 있다.
- 3 『세종실록』 85, 세종21년 4월 18일
- 4 鄭克仁, 『不憂軒集』 『韓國文集叢刊』 9(서울: 民族文化推進會, 1991), p.7, 臣等聞前朝之季有僧懶翁號爲生佛 幸賴有道之士 絕其根株 竟使自斃
- 5 申緯, 「懶翁鐵拄杖」 『警修堂全藁』 『韓國文集叢刊』 291, p.118c, 不扛紅頭走。百斤鐵虛使。懶翁固生佛。哀哉佛弟子
- 6 閔漬撰, 「佛祖傳心西天宗派旨要序」, 城中士女咸曰 釋尊復出
- 7 『태종실록』 22, 태종11년(1411) 7월 15일, 佛道雖驗, 世無僧如指空者, 安有其應
- 8 『태종실록』 27, 태종14년(1414) 6월 20일, 若指空則其可不尊事耶
- 9 『태종실록』 30, 태종15년 을미(1415) 7월 8일, 我國自指空、懶翁之後, 予所見知者, 無一僧精於其道者
- 10 현담 저, 『나옹왕사불적답사길』 (영덕불교문화발전연구원, 2017)에 따르면 나옹의 흔적이 있는 사찰이 남한에서만 70여 곳이 있으며, 북한에도 10여 군데에 이른다고 한다.
- 11 「懶翁和尚行狀」 『나옹화상어록』 『韓佛全』 6, p.708b, 當示寂時 郡人望見 五彩雲盖山頂 又師所騎白馬 預前三日不喫草 垂首悲泣 ... 時郡人咸見山上神光 瑩徹第一二張 寺僧達如 夢見神龍 蟠繞焚臺 還入于江 其狀如馬 門人陪靈骨舍利 將舟還檣崙 患旱久水淺 忽無雨而水漲 與久滯衆船 一時順流而下 則神龍之助可知也.
- 12 「普濟導者諡禪覺塔銘」 『나옹화상어록』 『韓佛全』 6, p.710a, 得舍利一百五十五粒 禱之分爲五百五十八 四衆得之灰中 以自祕者 莫知其數.
- 13 「懶翁和尚行狀」 『나옹화상어록』 『韓佛全』 6, p.708b, 茶毗已訖 頭骨五片 牙齒四十 皆不燒 以香水洗之時 無雲雨其地 其舍利 不知其數 四衆撥灰燼沙土而得之者 亦不可勝數也.
- 14 염중섭, 「나옹의 붓다화에 대한 고찰」 『사학연구』 115(한국사학회, 2014), pp.236~237 참조.
- 15 이색, 「潤筆菴記」 『牧隱文藁』 『韓國文集叢刊』 5, p.24c, 今懶翁既寂. 舍利遍國中. 寫眞以供養者. 又不可以一二計矣.
- 16 이색, 「安心寺指空懶翁舍利石鐘碑」 (『韓國金石全文』 中世下), p.1225, 此山普賢舍利無算散在名山 四衆奉持供養者多矣
- 17 이색, 「香山潤筆菴記」 『牧隱文藁』 『韓國文集叢刊』 5, p.13b, 普濟之弟子. 莫可數也. 而爲普濟奔走 於入滅之後. 銘浮圖記眞堂. 以謀其不朽者. 踵相接也.
- 18 『新增東國輿地勝覽』 8, 砥平縣 佛宇조, 李穡以王旨撰懶翁浮屠銘 其徒致潤筆物 穡不受使修廢寺 因名之
- 19 李穡, 「香山潤筆菴記」 『東文選』 72, 普濟在世則謗者多 而及其歿也趨向之又如此

- 20 李穡, 「普濟舍利石鍾記」 『東文選』 73, 普濟之示寂于驪興神勒寺也 靈異赫然 疑者釋信者益奮謀所以起敬於千載之下
- 21 李穡, 「彌智山潤筆菴記」 『東文選』 74, 師既示寂 有舍利之異 師道之益信於世
- 22 「驪興神勒寺禪覺眞堂詩」 『牧隱文藁』 『韓國文集叢刊』 5, p.071b, 吾師於五濁惡世 現相應機譬則佛出也。是以 檜巖也猶砥林焉 神勒也猶雙林焉。
- 23 『세종실록』 12, 세종 3년 5월 19일조
- 24 許興植 編著, 『韓國金石全文』 中世下, pp.1299~1300
- 25 남동신, 「여말선초기 나옹 현창운동」 『한국사연구』 139(한국사연구회, 2007), pp.170~183 참조
- 26 『태종실록』 16, 태종 8년 무자(1408) 8월 1일
- 27 『태종실록』 17, 태종 9년 기축(1409) 윤4월 26일
- 28 龍雲堂, 「松廣寺事蹟」 『曹溪山松廣寺史庫』 上(建物部), p.41, 行解堂指空懶翁無學三大和尚影幀奉安
- 29 이색, 「淸州龍子山松泉寺懶翁冥堂記」 『牧隱文藁』 『韓國文集叢刊』 5_048b, 垂我懶翁眞于其中
- 30 홍경모(洪敬謨, 1774~1851), 「古蹟記」 『冠巖全書』 『韓國文集叢刊』 속113, p.628c, 指空, 懶翁, 無學三大師。西山堂休靜, 泗溟堂惟政, 平原堂空慧, 鞭羊堂彦機, 楓潭堂義謨諸師影簇。初安於白華菴。火後移藏于表訓
- 31 이명준(李命俊, 1572~1630), 「遊山錄」 『潛窩遺稿』 『韓國文集叢刊』 속017, p.390c, 殿後有懶翁影堂。堂後有浮屠。
- 32 유정문(柳鼎文, 1782~1839), 「宿大乘寺向金龍」 『壽靜齋集』 『韓國文集叢刊』 속117, p.426d, 寺有懶翁眞影
- 33 김춘택(金春澤, 1670~1717), 「懶翁殿。題三大師畫像」 『北軒居士集』 『韓國文集叢刊』 185, p.89d
- 34 이만부(李萬敷, 1664~1732), 「南長寺事蹟記」 『息山集』 『韓國文集叢刊』 178, p.391c, 左右列眞鑑, 懶翁, 淸虛, 泗溟, 幻寂, 昭影等眞曰影子之堂。
- 35 신석우(申錫愚, 1805~1865), 「通度寺記 丙辰」 『海藏集』 『韓國文集叢刊』 속127, p.450c, 旁有慈藏影堂。配以指空, 懶翁, 無學三師像
- 36 『정조실록』 정조 23년 8월 22일, 경기감사의 장계, ‘보살사는 바로 신승(神僧)인 이웅 존자 무학대사(利雄尊者無學大師)가 창건하였습니다. 모친을 받들고 이 절에 은거하면서 삼불(三佛)을 모시고 있으며, 무학·나옹·지공 세 대사의 유상(遺像)을 모시고 있는데’
- 37 홍경모(洪敬謨, 1774~1851), 「鶴城志」 『冠巖全書』 『韓國文集叢刊』 속114, p.050a, 而曰釋王祠。建於土窟舊址。享指空, 懶翁, 無學三禪師。曰龍飛樓
- 38 이색, 「香山潤筆菴記」 『牧隱文藁』 『韓國文集叢刊』 5_p.13b, 而邀師之眞。垂之堂中
- 39 「涵虛堂得通和尚行狀」 『함허당득통화상어록』 『韓佛全』 7, p.251a, 詣靈鑑菴 薦羞懶翁眞影信宿其菴

- 40 이색, 「巨濟縣牛頭山見菴禪寺重修記」 『東文選』 75, 於寺之艮隅。建懶翁影堂
- 41 卞季良, 「妙嚴尊者塔銘」 『東文選』 121, 師以先師指空懶翁二塔名及掛懶翁眞事。奉旨刻塔名於檜巖。大設掛眞佛事于廣明寺
- 42 김형우, 『고승진영』 (대원사, 1996), pp.108~114에는 지공·나옹·무학 삼화상의 진영이 여주 신륵사, 양주 불암사, 양주 회암사, 회양 표훈사, 승주 선암사, 양산 통도사에 있다고 했다.
- 43 남동신, 앞의 논문, p.187
- 44 19세기초 이규경(1788~1856)의 「오주연문장전산고」에는 '목멱산신을 향사할 때 전사당(典祀廳)에서 사사로이 국사당(國師堂)이라 불렀다. 고려공민왕·본조승무학·고려승나옹·서역승지공의 그림과 다른 신들의 그림이 걸려있다.'고 했다. 여기서 국사(國師)란 신라시대부터 조선태조 때까지 학식과 덕행이 높은 고승을 국가의 스승으로 모신 데에서 비롯한다. 그러나 이 국사당은 불교의 국사와는 관계가 없고 민간인들이 국사당이라 별칭해서 사용했을 뿐이다.
- 45 김태곤, 「국사당 신앙 연구 - 중서부지방 형태를 중심으로」, 『백산학보』 8(백산학회, 1970), p.83
- 46 경신년(1320)은 나옹이 탄생한 해다.
- 47 『通錄撮要』 『韓佛全』 7, p.806a, 熾盛光明經云 世尊告迦葉尊者曰 我滅道後後五百歲 吾法乃行新羅五種外道盛行於世 敢壞我法 庚申之間 有一比丘 作大沙門 作大佛事 破諸外道 號曰普濟懶翁 其會曰工夫選 迦葉當知 我身是也
- 48 「震默祖師遺蹟攷」 『韓佛全』 10, p.883c, 余嘗讀釋迦懸記 有云我滅道後 有一比丘出 名懶翁 我身是也 又一比丘出 名震默 我身是也 若二法老 卽我本師之小化身 而分形千億 拔濟塵數赤子於閻浮苦海 從可推矣
- 49 「涵虛堂得通和尚行狀」 『涵虛堂得通和尚語錄』 『韓佛全』 9, p.251a~b, 詣靈鑑菴 薦羞懶翁眞影 信宿其菴 夜夢有一神僧 從容謂師曰 卿名己和 厥號得通 師拜手祇受 憊然夢覺
- 50 『세종실록』 85, 세종 21년 4월 18일, 今者有僧行乎, 住止興天, 不鑑昔日之轍, 自謂懶翁之儔, 惑世誣民, 思易風俗, 民之景慕, 無異懶翁,
- 51 「喚惺和尚行狀」 『喚惺詩集』 『韓佛全』 9, p.476a, 謂設齋百日 得詩數句 曰擔得須彌渡大海 大施門開草裡行 夢中贈詩者 自稱曰勤老師 是懶翁惠勤也
- 52 「華臺大禪師行狀抄」 『聾默集』 『韓佛全』 11, p.708b, 還接于觀音殿 着力做工 全依佛祖之方樣也 一日夜夢親見六祖禪師與懶翁和尚
- 53 이성운, 「의례로 읽는 삼보와 재승관」 『문사철』 38(한국불교사연구소, 2014), p.161
- 54 「說禪儀後跋」 『韓佛全』 7, p.743b, 而諸山壇宗室位 亦是大老在世時口訣者 且觀祖師禮懺 則吾東方傳祖燈者 曰道義 曰梵日 曰哲鑑 曰無染 曰玄昱 曰道憲 曰慧徹 曰利儼尊者 曰洪陟 曰普照 曰指空 曰懶翁 曰無學而已
- 55 『仔夔刪補文』 『韓國佛教儀禮資料叢書』 2, p.382, 한 페이지가 잘려나가 나옹의 계승 일부와 무학의 내용은 없으나 다른 조사에참문을 참고해보면 나옹과 무학의 계승이 잘려나간 것을 알 수 있다.
- 56 『禪門祖師禮懺作法』 『韓國佛教儀禮資料叢書』 2, pp.451~452

- 57 『刪補梵音集』 『韓國佛教儀禮資料叢書』 2, p.624, 석가모니불에 이어 제1조 가섭존자부터 33조 혜능대사까지 인도로부터 중국에 이르는 조사들과 함께 찬탄 계송을 읊고 있다. 이어서 한국의 9산 조사들과 함께 찬탄 계송을 읊고 있다. 다음 보조국사의 이름만 있고 86페이지 이후가 잘려나갔으나 조사를 찬탄하는 계송이 『선문조사예참작법』 과 같으므로 이후에는 지공·나옹·무학을 찬탄하고 있음이 확실하다.
- 58 「禪門祖師禮懺」 『韓國佛教儀禮資料叢書』 3, p.53
- 59 「禮文」 『韓國佛教儀禮資料叢書』 3, p.655
- 60 「諸般文」 『韓國佛教儀禮資料叢書』 2, p.527, 五月十五日 恭愍王師 普濟尊者 懶翁大和尚 九月十一日 太祖王師 妙嚴尊者 無學大和尚
- 61 井幸 編, 「僧家日用食時默言作法」 『韓國佛教儀禮資料叢書』 3, p.551, 釋迦文佛 四月八日 阿彌陀佛 十一月十七日 文殊菩薩 四月初五日 地藏菩薩 七月十三日 懶翁祖師 五月十五日 無學祖師 九月十一日
- 62 이능화, 『佛教』 창간호, p.21
- 63 「華嚴禮敬文」 『韓國佛教儀禮資料叢書』 4, p.682, 南無華嚴七祖馬鳴菩薩龍樹菩薩帝心祖師雲華祖師賢首大師清涼國師圭峯禪師海東初祖元曉祖師義湘祖師爲作證明指空懶翁無學三大和尚
- 64 鼎奭 書, 「華嚴大禮文」 『韓國佛教儀禮資料叢書』 4, p.714, 一切作法之處 爲作證明法師 西天國百八代祖師 提納縛陀尊者 指空大和尚 高麗國 恭愍王師 普濟尊者 懶翁大和尚 朝鮮國 太祖王師 妙嚴尊者 無學大和尚...
- 65 「造像經」 『韓國佛教儀禮資料叢書』 3, p.365, 證明位目 證明法師 普濟尊者 懶翁大和尚 證明法師 提納縛陀尊者 指空大和尚 證明法師 妙嚴尊者 無學大和尚
- 66 『作法龜鑑』 『韓國佛教儀禮資料叢書』 3, p.437, 至心歸命禮 西天國百八代祖師 證明位 指空大和尚 恭愍王師 普濟尊者 證明位 懶翁大和尚 太祖王師 妙嚴尊者 證明位 無學大和尚 唯願慈悲 爲作證明 成就佛事
- 67 『要集』, 『韓國佛教儀禮資料叢書』 4, p.560, 西天國百八代祖師 證明位 指空大和尚 恭愍王師 普濟尊者 證明位 懶翁大和尚 太祖王師 妙嚴尊者 證明位 無學大和尚 唯願慈悲 爲作證明 成就佛事
- 68 안진호, 『석문의범』 (법륜사, 1993), p.37, 一切作法之處 爲作證明法師 西天國 百八代祖師 提納縛陀尊者 指空大和尚 高麗國 恭愍王師 普濟尊者 懶翁大和尚 朝鮮國 太祖王師 妙嚴尊者 無學大和尚
- 69 안진호, 『석문의범』 하, p.117, 三大法師者 三慧具足 二利圓成 歷代心印宗下 已得密傳之旨 十方佛事門中 常作證明之位
- 70 宗梵, 「懶翁禪風과 朝鮮佛教」 『가산이지관스님화갑기념논총 한국불교문화사상사』 상(가산불교문화연구원, 1992), pp.1164~1165.
- 71 염중섭, 「환암훈수의 사법정황과 법계에 대한 인식변화 I」 『국학연구』 33(한국국학진흥원, 2017), p.309
- 72 「佛祖宗派之圖」 『韓佛全』 7, p.9b~c
- 73 李穡 撰, 「太古寺圓證國師碑」 『韓國金石全文』 中世下, p.1233. 門徒 國師知雄尊者 混修
- 74 維昌 撰, 「圓證國師行狀記」 『韓佛全』 6, p.700a, 其推爲上首輩者 曰幻菴和尚 今爲國師正辯智智雄尊者 曰古樗和尚 今爲王師妙辯智圓應尊者

- 75 李達表이 지은 「覺眞國師碑」에 元珪등이 임금께 스승의 비석을 세워 기록하게 해 달라고 했다는 기록이 있다.
- 76 尙聰은 「보각국사비」의 음기에 門徒라 하여 기록되어 있으며, 李穡이 惠勤의 문도들에게 부탁하여 대장경 간행불사를 했을 때 그 檀越의 명단에 있다.
- 77 李穡 撰, 「神勒寺普濟禪師舍利石鐘碑」 『韓國金石全文』 中世下, p.1211, 門生 前往松廣廣通無碍圓妙大智普濟大禪師脩幻菴
- 78 李穡 撰, 「安心寺指空懶翁舍利石鐘碑」 『韓國金石全文』 中世下, p.1226, 門生名目比丘 國師大曹溪宗 師禪教都摠攝開天寺住持悟佛心宗興慈運悲福國利生妙化無窮都大禪師正遍智智雄尊者幻菴混脩...
- 79 李穡, 「幻菴記」 『牧隱文藁』 『韓國文集叢刊』 5 p.033a, 稍長 縫掖十八人結契爲好 今天台圓公曹溪修公與焉 相得之深 相期之厚 復何言哉 及予官學燕京 修公亦入山 今三十年矣 間或相值 信宿則別 迴思前日詩酒淋漓 何可復得.
- 80 『牧隱詩藁』 10권에 詠幻菴方丈石燈, 11권에 奉懷幻菴, 14권에 聞幻巖入城, 17권에 憶幻菴, 18권에 奉懷幻菴, 奉題幻菴方丈, 19권에 有懷幻菴, 22권에 有懷幻菴, 26권에 無門言幻菴在自雲菴, 30권에 奉寄幻菴, 33권에 寄呈幻菴 走筆, 35권에 幻菴送書惠以時 寄呈幻菴 등이 실려 있다.
- 81 『牧隱時藁』 에는 懶翁의 제자인 幻菴과 絶磻 등을 위한 時 십여편을 남기고 있으며, 『牧隱文藁』 에는 나옹의 진영을 모시는 眞堂記, 潤筆菴記와 舍利石鐘記, 牛頭山見菴禪寺重修之記, 五臺山上院寺僧堂記, 普濟尊者語錄後序, 幻菴記, 平心堂記, 呈泉軒記, 松月軒記, 負暄堂記, 平源說, 仲英說, 雪牛說, 題溪月軒印空吟 등 수많은 글을 남기고 있다.
- 82 權近 撰, 「普覺國師定慧圓融塔碑」 『朝鮮金石總覽』 下, p.721, 入五臺山居神聖菴時懶翁勤和尚亦住孤雲菴數與相見咨質道要翁後以金欄袈裟象牙拂山形杖遺師爲信
- 83 「幻菴」 「寄幻菴長老山居」 「送幻菴長老謁師翁」 「幻菴傳寫五位註頌來看因以題前」 등의 시가 있다.
- 84 『懶翁和尚語錄』 『韓佛全』 6, p.711b, 侍者 覺璉錄 廣通普濟住 釋幻菴校正
『懶翁和尚歌頌』 『韓佛全』 6, p.730a, 侍者 覺雷錄 廣通普濟住 釋幻菴校正
- 85 이철헌, 「나옹혜근의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pp.181~183참조
- 86 許端甫, 「清虛堂集序」 『韓佛全』 第7冊 pp.659c~660a 道峰靈炤國師 入中原得法眼永明之傳 宋建隆間返本國 大闡玄風以救末法...師之正法眼藏傳于道藏神範 歷清涼道國龍門天隱平山崇信妙香懷溼玄鑑覺照頭流信脩 凡六世而得普濟懶翁 翁久在上國博參諸善知識 圓通卽詣蔚爲禪林之師表 傳其法者南峰修能爲嫡詞 而正心登階寔繼之卽碧松智嚴之師也 碧松傳于芙蓉靈 觀得其道者唯稱清虛老師爲最杰云
- 87 李鍾益, 『韓國佛教の研究』 (東京: 國書刊行會, 昭和55年), p.536
- 88 李能和 著, 『朝鮮佛教通史』 上, p.483 觀此兩文所載師法相傳之迹 實無條理 有時混稱臨濟曹洞之風 有時并稱法眼 永明之傳 亦稱靈炤 亦稱牧牛 又引許多生面禪師 入乎其間 如持亂絲 難尋其緒也
- 89 高翊晉, 「碧松智嚴의 新資料와 法統問題」 『佛教學報』 22, p.211
- 90 위의 논문, p.210.
- 91 許端甫, 『惺所覆瓿藁』 卷21 『韓國文集叢刊』, p.321, 文部 18, 與西山老師, 壬寅 三月.
- 92 위의 책, p.322, 「與松雲大師」 甲辰 二月

- 93 許端甫 撰, 「四溟堂集序」 『韓佛全』 8, p.46a, 師融會貫通 超悟朗詣 信得曹溪黃梅家法
- 94 한국종교연구회 지음, 『한국종교문화사』 (서울;청년사, 1998), p.202
- 95 彦機, 「蓬萊山雲水庵鍾峰影堂記」 『鞭羊堂集』 『韓佛全』 8, p.253c, 今四門子孫 不失臨濟者 有本有原 吾東方太古和尚 入中國霞霧山 嗣石屋而傳之幻庵 幻庵傳之小穩 小穩傳之正心 正心傳之碧松 碧松傳之芙蓉 芙蓉傳之登階 登階傳之鍾峯焉
- 96 彦機, 「西山行蹟草」 『鞭羊堂集』 『韓佛全』 8, p.254b, 臨濟宗風者 有本有原 吾東方太古和尚 入中國霞霧山 嗣石屋而傳之幻庵 幻庵傳之龜谷 龜谷傳之正心登階 正心登階傳之碧松智巖 碧松智巖傳之芙蓉靈觀 芙蓉靈觀傳之西山登階 石屋乃臨濟嫡孫也
- 97 해안, 「송운대사행적」 『韓佛全』 8, p.73b,
- 98 金煥泰, 「朝鮮禪家の 法統考」 『불교학보』 22, pp.21~36